샌드위치 위기론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산업의학과
이 종 태

이건희 삼성 회장이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상황을 샌드위치에 비유하였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우리 형편을 ‘ 샌드위치 위기론 ’으로 표현하여 우리나라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샌드위치는 원래 빵 사이에 육류와 채소류를 끼워 만든 음식으로 시간에 쫓기는 사람을 위해 18세기 영국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현재에는 전 세계인이 식사대용품으로 널리 애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있는 먹거리이다.

본인이 산업보건 분야에서 일을 한지도 벌써 20여년이 넘어가는데 늘 우리의 형편이 샌드위치와 같을 때가 많다는 생각을 가진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상대하여 일이 진행되는 경우보다 양쪽의 이해 속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주로 양쪽의 빵에 해당하는 측은 사업주와 근로자이거나, 노동부와 사업주일 때가 많다. 대부분 일의 결과가 양쪽 모두에게 치우침 없이 정당하여 우리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충분하지만, 민감한 사안일 경우 때로 고성이 오가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리기에 많은 고민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라도 우리의 입장은 빵 사이에 단순히 끼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샌드위치의 부분 중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로서 육류와 채소류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스스로 늘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고기와 채소이기를 희망하고 노력하였다.

근년 들어 우리 산업보건사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또 다른 ‘ 샌드위치 위기론 ’을 연상케 하여 당혹스럽다. 사업주와 근로자들로부터는 건강진단 과정과 그 결과를 불신 받고 노동부와의 관계에서도 불신이 있는 것 같다. 그 원인이야 어

떻든 우리사회에서 불거지고 있는 제 현상들이 우리 분야에서 축소판으로 일어나고 있어 그 해결책은 그리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다.

빵 사이에 끼워져 있어 신세가 장마철 후텁지근함에 더하여 더욱 답답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럴수록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겸손함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고기와 야채의 신선도와 영양가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어려움에 빠질수록 초심으로 되돌아가라는 말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스승과 선배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1963년 대한산업보건협회를 창립하고 우리나라 산업보건사업을 개척한 정신으로 우리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산업의학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행동규범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의학전문의는 작업장과 환경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여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의해 성실하게 의료 행위를 하여야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모든 직업적 관계에 있어서 정직하고 윤리적이어야 한다. 이는 미국의 산업의학전문의 윤리행동규약의 일부 내용으로서 우리나라 산업의학회에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산업의학전문가로서 꼭 갖추어야 할 행동규범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산업의학회에서도 이러한 윤리행동규약을 빠른 시간 내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

德者事業之基 未有基不而棟宇堅久者(덕은 모든 일의 기본이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집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격언을 되새겨 산업보건전문가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소명의식을 새롭게 하고 더욱 분발하여 거듭나야 한다.

샌드위치의 속에 들어있는 야채와 고기가 더욱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거기에다 새로운 맛을 더한다면 샌드위치 본래의 명성과 사랑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한다.